

부담 커진 고향방문... 귀성길 렌터카·공유차량 이용 ↑

코로나 여파에 대중교통 기피 렌터카업체, 특가 프로모션 활발
롯데 24시간 무료이용권 증정
그린카 정액제 등 3종 쿠폰 이벤트
쏘카 '추석 얼리버드' 프로모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중 최대의 명절인 추석 귀성길 모습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네 자릿수 확진자가 70일 가까이 나오면서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국내 렌터카와 차량공유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업체별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13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 1일 경부·경전·동해·대구·



롯데렌터카 '24시간 무료이용권' 지급 프로모션



롯데렌터카 '한가Week 쿠폰체크' 이벤트



그린카 '추석 얼리버드' 대여료 할인 이벤트

/쏘카

충북·경북·동해남부선 등 7개 노선의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판매 대상 좌석(좌측) 53만1000석 중 25만9000석이 팔려 예매율 48.9%를 기록했다. 지난해 추석 승차권 예매 첫날에는 26만3000석이 팔려 예매율 52.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예매 좌석과 예매율 모두 소폭 하락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좌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 상황은 같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교통보다 차량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렌터카와 차량공유 업체들은 이같은 이용객들

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국내 1위 브랜드 롯데렌터카는 추석을 맞아 단기렌터카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26일(추석 연휴 포함)까지 단기렌터카를 48시간 이상 대여하면 24시간 무료이용권 1매를 지급한다. 무료이용권은 다음달 15일 자동으로 발급된다.

업무미팅, 출장 등 목적으로 평일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매주 화요일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월14일부터 11월30일(추석 연휴 제외)까지 롯데

렌터카 내륙지점에서 화요일을 포함해 단기렌터카를 대여하면 최대 60%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린카도 추석을 맞아 '한가Week 쿠폰체크' 이벤트를 선보였다. 오는 16일까지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50% 할인쿠폰 ▲96시간 이상 대여 시 11만6000원 정액제 쿠폰 ▲106시간 대여 시 12만6000원 쿠폰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용 기간은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9월 17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는 추석 연휴

기간 사용할 카셰어링 차량을 빨리 예약할수록 대여 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추석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차량을 예약하면 추석연휴기간 대여료 최대 78% 할인 쿠폰을 앱 내 쿠폰북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은 차종과 대여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추석 얼리버드요금 할인은 17일 오전 0시 이후 차량 이용을 시작하고, 26일 밤 12시 이전에 반납하는 예약에 적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고객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2014년 해킹사고로 과징금 처분
대법원 "방통위, 재량권 일탈·남용"

KT가 고객정보가 유출돼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지난 2014년 해킹사고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해커들은 KT 관련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요금명세서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980만명(12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KT가 고객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1심은 해커가 이용한 퇴직자 계정의 정보 접근권한을 KT가 삭제하지 않아 해킹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KT는 침입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는 방지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는 점이 언급됐다. 해커가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긴 했으나, 정상적인 접속에 비해서 1%도 채 안 되는 횟수여서 방지시스템이 이상행위로 탐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 전용의 링크를 취득한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KT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KT는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 보안 전문가를 통해 상시적으로 모의 해킹 훈련을 실시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KT가 방통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시 제4조 5항과 9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는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4조 5항과 9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이 방통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통위 고시 제4조 9항에 따른 조치, 즉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KT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혁 기자 junhyuk@

KT, IT·SW·ICT 채용전환형 인턴 선발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

KT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나선다.

KT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IT설계, 소프트웨어(SW)개발, ICT(정보통신기술)인프라기술 3개 직무로 KT는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IT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서류 접수는 9월14일부터 27일까지며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을 통해 채용전환형 인턴을 선발한다.

각 전형에서는 직무 역량과 KT의 핵심가치 부합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모든 전형은 블라인드로 운영된다. KT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면접을 시행하는 등 지원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KT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



는 채용전환형 인턴십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실무교육과 채용 직무별 현장인턴십으로 구성된 9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인턴 면접을 거쳐 KT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역량을 갖고 있는 인턴은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T 채용 홈페이지와 KT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T 경영지원부부장 신현욱 부사장은 "KT의 기술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도권과 지역 기반 인재에 대한 균형 있는 채용과 인재양성을 지속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알리바바,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 개최

글로벌 디지털 탠트 개막

알리바바 그룹이 최고 2만달러(약 2300만원)를 제공하는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알리바바 그룹은 '2021 알리바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글로벌 디지털 탠트(GDT)'를 개최해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에게 사업 실현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GDT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은 9월 30일에 마감된다.

올해 대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쇼핑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DTC(Direct-To-Consumer) 브랜드를 강조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비대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지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자는 알리바바 GDT가 추천하는 기존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씨케이브릿지와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관한다.

선발전에서 우승한 팀은 11월5일에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필리핀, 태국, 영국 등 12개 국가 우승팀과 함께 결선에 오른다.

최종 글로벌 결선에서 우승한 팀은 각각 2만달러(약 2300만원), 1만달러(약 1200만원), 5000달러(약 59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준혁 기자

NHN, '페이코' 설립 이후 첫 신입 공채

사업·영업·마케팅 등 두 자릿수 모집

NHN이 '2021년 페이코(PAYCO)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통해 회사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NHN은 생활금융 플랫폼 '페이코'로 결제, 금융, 공공 등 일상 곳곳에 자리잡으며 페이코 라이프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NHN페이코가 비기술 직군을 대상으로 사업, 영업, 마케팅 등 세 가지 부문에 걸쳐 신입사원 두 자릿수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NHN페이코가 2017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신입 공채로, 앞으로 매년 페이코 신입사원 채용을 정례화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전형절차는 오는 15일부터 10월4일까지 NHN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를 받고,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한해 사전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1차 면접 'T인터뷰'와 2차 면접인 'C인터뷰'를 진행한 후,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인터뷰는 화상면접으로 실시된다.

/강준혁 기자